전주매일 CMYK

매일 INDEX

4면
전북대, 개교 75주년 기념식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음 9월 22일) 제31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순창장류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사진은 장류축제 기간에 열린 임금님 진상행렬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순창장류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순창의 맛, 세계인 사로잡다

'도전! 다함께 순창꽃추장 만들자!' 퍼포먼스, 큰 호응 얻어

임금님 진상행렬에 관광객도 참여 볼거리서 '놀거리' 로 전환

최영일 군수, 폐막식서 "축제 성공 위해 땀 흘린 분들께 감사"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순창장류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나들이 나온 행락객과 군민 등이 축제장으로 운집하면서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뤘다.

어린이들은 행사장인 발효테마파크의 다양한 시설들을 즐겼고 관광객들은 행사장 일원에 배치된 국화와 핑크뮬리, 조형물과 꽃탑, 청사초롱 등을 배경으로 인생샷 남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식전 퍼포먼스로 아름다운 국화로 가득 메워진 국화거리에서 관광객들이 고추장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함께 고추장을 만드는 '도전! 다함께 순창꽃추장 만들자!' 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퍼포먼스는 축제장을 빨간 물결로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했다. 관광객들은 이렇게 만든 고추장을 무료로 가져가며 순창의 매운맛을 나눴다.

또한, 조선시대 임금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순창고추장을 임금님께 진상하는 행렬을 재현함으로써 고추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됐다. 특히, 올해에는 고추장 진상행렬을 야간에 마칭밴드와 LED 브라스 밴드의 퍼레이드로 진행했다. 행렬 끝에 관광객이 꼬리물기 형식으로 참여해 볼거리에서 놀거리로 업그레이드시켜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화려한 조명으로 밤을 수놓은 EDM쇼는 귀가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발길을 부여잡았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순창민의 독특한 소스로 숯불구이 체험존과 떡볶이 마을을 조성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또한, 고추장을 상징하는 붉은 옷 착용 시 축제장 곳곳에서 먹을거리와 순창 농특산품을 할인가로 구매하는 이벤트 등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폐막식에서 "축제의 성공을 위해 땀흘린 축제추진위원회와 관계공무원,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축제를 통해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내년에 더욱 풍성한 축제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도, 국가예산 확보 잰걸음 이어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기재부 등 찾아 설득나서

국회 단계서 증액 필요한 분야별 핵심사업 지원 요청

전북도의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앙부처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을 찾은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한데 이어, 14일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기재부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잰걸음을 이어갔다.

이는 본격적인 국회 심사에 앞서 예산 반영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증액 요구 시 긍정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 설득 활동을 펼친 것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한 주요 예산과장들을 면담하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사업의 증액,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영화(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산업분야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4일 남동오 국토교통예산과장(사진 왼쪽)을 찾아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중점사업으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지역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사업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당초 목표인 2024년 완공을 위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새만금 동서도로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타당성심사과장과의 면담에서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도 지휘부와 전 실국이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의원 대상으로 설명 활동을 쉼 없이 이어가 주요 핵심사업들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에는 각각 지역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단계 중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상시적인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각 시군과의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농관원, '국가인증 농식품 전시관' 운영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선도상품관서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2022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선도상품관에 '국가인증 농식품 전시관' 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관 운영은 농식품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증진과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에는 국가인증품인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인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품,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인증품, 전통 식품, 술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등 주요 35개 품목을 전시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국가인증품은 맛있고 건강한 농식품을 고르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전시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 비교전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